



www.newsunion.co.kr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25 / 전화 398-3620~2 / 팩스 398-3630 / 발행인 오정훈 · 편집인 이율.김태균

"부당한 압력 · 눈치보기 중단하라!"

"편집권은 우리 모두가 수호해야 할 최종보루"

공보위, KBS 청와대 보도개입 폭로 기사 누락 관련 특별보고서 채택

연합뉴스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는 2일 KBS에 대한 청와대 보도개입 폭로 기사 누락과 관련,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공보위는 특별보고서에서 "이번 기사 누락은 정권 눈치보기가 편집국내 만연하고, 편집과 경영 분리의 원칙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더이상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는 식의 어리석은 기사누락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보위는 "관련 보도책임자들은 주 말을 앞둔 금요일 심야의 판단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그 배경에 청와대와 계약 사이자 동업자인 KBS 기사에 대한 이 른바 외부와 경영진의 상시적 압박에 따른 눈치보기가 있지 않았는지 의구심 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보위는 "경영진은 부당한 간섭이 나 압력으로 편집과 경영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편집 국 보도책임자들도 정권과 경영진 눈치 보기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공보위는 이어 "편집국 구성원 개개 인도 103일간 파업을 불러왔던 불공정 보도의 유령을 배격하고 사실과 양심에 따른 보도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편집권행사는 회사의 지속가능 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수호해야 할 최 종보루"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 16일 KBS 기자총회에서 김시곤 보도국장이 길환영사장을 통한 청와대 보도개입을 폭로했음에도, 당일 기사를 누락하고 17일 오후 5시 26분에야 처리했다.

담당 보도책임자인 이성섭 문화부장 은 공보위에 기사누락 경위와 관련, "금 요일 밤늦게 상황이 벌어졌는데 건건이 중계하기보다는 모아서 쓰는게 바람직 하다는 생각에 다음날 나오는 신임투표 결과와 묶어서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 면서 "결과적으로 중대사안이었는데 내 판단미스였다"고 해명했다.

이병로 편집총국장은 "저녁 약속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다음날이 토요일이었고, 기사를 안쓰겠다고 한 것도 아니어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서 "평소 KBS가 연합뉴스의 최대 계약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안 되는 것은 안된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부디 편히 쉬기를..항상 웃는 얼굴 기억할게"

사진부 배정현 조합원을 보내며

양 어깨에 무거운 카메라를 메고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던 배정현 조합원이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났다.

고 배 조합원은 지난 4월 23일 전날 자정께까지 야근하고, 다시 야간당직을 위해 출근을 준비하던 중 자택 부엌 식탁 앞에서 사망했다.

고인은 동료 조합원과 사우들의 애도 속에 용인 평온의 숲에 안치됐다. 고인은 2011년 1월 32기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사진부에서 근무해왔다.

고인이 취재한 마지막 사진은 22일 오후 10시 51분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송고한 2014 프로야 구 넥센-롯데의 경기사진이다.

그는 사망 전날 파주 축구대표트레이닝 센터에서 2014 아시 안컵 대표팀 소집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국 수퍼마켓협동조합연 합회 회장 취임식과 이부영 새정치민주연 합 상임고문의 토론회 인사말, 등촌동 한국 해운조합 현장 등을 취재해 모두 68장의 사진을 송고했다. 세월호 참사로 연합뉴스 사진부는 3명 가량을 진도로 파견했고, 경기도 안산 등으로도 지원을 나가야 해 업무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사망 전 날 배 조합원은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무려 5개 의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노동조합은 이번주 법률사무소 새날의 권동회 노무사와 계약을 맺고 배 조합원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배 조합원의 사인 이 급성 심장마비일 수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하 다는 내용의 부검소견서를 경찰로 통지했다. ■





연합노보 02







빌딩숲을 뛰어넘는 강아지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수하동에서 바라본 하늘. 2012.8.2



'피카츄 구름'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무더위 가 물러난다는 처서인 23일 오후 서울 관악산에서 본 서 울 하늘. 2011.8.23





우리는 죽음을 항해 걷는다기보다 죽음과 함께 걷는 듯하다

얼마전 배정현과 함께 장희재의 무덤에 다녀왔다. 별로 친하지도 않았으면서 배정 현은 장희재가 죽었을 때 유난히 서럽게 울 었다. 나는 배정현에게 우는 얼굴이 정말 못생겼다고 놀렸고 배정현은 이를 인정했 다. 다시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명훈 스포츠부

장희재가 죽고 1년쯤 지났다. 배정현은

많이 달라졌다. 결혼은 못하겠다. 구속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자 얼굴이 앞에 있으면 답답하다. 어떻다 하더니, 장희재 무덤 앞에서 배정현은 결혼하면 좋다는 둥 너스레를 떨며 자기 부인 자랑을 해대는 배정현이라니. 웃겼다.

열흘전, 술자리에서 배정현한테 물었다. "행복하냐"

배정현이 찍고 싶은 사진은 뭐였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렇지만 찍고 싶은 사진만 찍으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단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늘 배정현의 입에 달려 있었다. 스페인이 어떻고, 아르헨티나가 어떻고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다. 배정현이 그럴때마다 (조금 부러움과 질투를 섞어서) 정신차리라고 했는데 이제와생각해보니 괜한 말이었다. 배정현은 결혼도 하고 했으니 미래를 위해회사를 못 그만두게 됐다고 얼마 전에 말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확 가번린 건 정말 억울할 것 같다. 죽는 날짜를 미리 좀 알았다면, 배정현은 당장 사표를 던지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날 아가서 후다닥 사진 찍고 와서 자랑을 늘어놓았을데. 사진 핸드폰에 넣어와서 억지로 보여주며 '끝내주지 않냐?', '진짜 잘 찍는 것 같지 않냐?' 하며 째지게 웃었을텐데.

죽는 날짜를 좀 알았다면 '영데, 넌 나 처럼 되지 말고, 오이유 잘 챙겨라' 이런 잔소리 쏟아놓고, 아마 웃으면서 누웠을 걸.

배정현은 내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임마"

'행복'을 두 번 반복한 건, 이를테면 '강한 긍정' 이었을까?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여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걷던 죽음이, 틈도 없이 배정현의 손을 잡았다. 배정현은 솔직히 조금 약오를 것 같다. '내가 죽었는데 이자식들 다 엄청 웃고 있어!' 빈소에 천명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밥먹으면 서 다들 무지하게 시끄럽게 웃다가 갔다. 당연히 배정현이 대화 주제 였다. 다들 자지러지게 웃는 걸 보며 조금은 니가 부러웠다. 박장대소 를 하던 사람들도 영정 앞에서는 울었다.

"너 임마 질투나 아주"

배정현이 행복한 건 말할 것도 없이 그분들 덕분이다. 회사를 못 그만두는데도 행복하대. 나참.

지 머리통보다 작은 '1-1498번' 납골함에다 배정현을 넣어 놓고 회사로 돌아온 첫 날이다. 코끝이 찡하다가, 웃다가 한다. 아직도 실감은 안 난다. 내일은 어떡하냐 한숨쉰다. 늘 니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내일 걱정은 낼모레 해'





세월호 참사 보도, 연합뉴스의 현주소는

"제대로'보도하기 위해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못했다. 가장 힘든 것은 언론에 대한 불신이었다. 생존자와 실종자 가족, 당국자에게조차 외면을 받아 카메라는 물론 취재수첩과 노트북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실제 봉변 사례도 많았다. 비난, 욕설, 불만을 들으면서도 '팩트'를 찾고 '오보'를 막기 위해 확인과정을 되풀이했다"

진도 팽목항, 실내체육관, 목포 한국병원, 안산 단원고, 안전행정부 등 세월호 참사 현장과 주변을 취재한 조합원들의 목소리다.

연합뉴스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욕설을 시발점으로 세월호 참사 실종자 구조·수색 작업에 관한 정부 발표를 확인하지 않고 받아썼다는 이유로 무참히 공격받았다. 노동조합은 세월호 참사 현장과 주변을 취재한 조합원 49명 중 7명에게 취재현장의 어려움과 향후 재난취재보도에 개선점을 물었다.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자식을 잃고 무너진 부모들,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헛된 소문마저 믿으려는 가족들을 항해 들었던 펜과 카메라가 천근만근 무거웠다면서, 참사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고 취재하는 심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기레기(기자쓰레기)' 라는 말을 듣는 것은 그 고통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 "연합뉴스 기자라고 말할 수 없었다"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연합뉴스 기자' 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취재장비에 연합뉴스 스티커를 떼고 다녔다고 고백했다.

한 조합원은 "언론이 참사를 키운 공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연합뉴스 기자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다른 조합원은 "취재장비에 연합뉴스 스티커를 떼고 다녔다"면서 "군중심리라는 게 실재하는데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성나서 한꺼번에 몰려드는 상황에 부닥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항의성 메일이 쏟아지고 세월호 관련 기사가 아닌데도 세월호 보도방향을 거론하며 터무니없이 강하게 항의하는 전화와 메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또 주변 사람들에게서 질타를 받고, 인터넷상에서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신상이 털린 점이 오랜 상처가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 다

연합뉴스 공격의 출발점이 된 이상호 기자에 대해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 도 나왔다.

한 조합원은 "이상호 기자에 대해 초기에 대응하지 않아 화를 키우지 않았나 생 각한다"면서 "일관된 지침 없이 일선 기자들이 독자들의 항의전화를 떠안아야 하 는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관행이라고 옳은 방향은 아냐…실수는 인정하고 반성해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언론의 언론' 으로서 글 한 줄 한 줄이 어떻게 읽힐 지 생각하고, 실수가 있었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한 조합원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그런 언행을 했는지 배경을 따져보거나 반박하는 일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 기자의 언행에 독자들이 왜 호응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관행이라고 옳은 방향은 아니지 않은 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자에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더라도 독자는 의도가 있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조합원은 "정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전원구조 오보, 실종자 구조 수색 투입인원 부풀리기 논란 등 결과적 오보가 있었다"면서 "왜 오보가 났는지 초기에 보도했다면 그렇게까지 매도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초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한 점, 취재현장의 팀원 간 협업이 잘돼 대응력이 높았던 점은 긍정적 측면으로 꼽혔다.

◇"팩트확인·균형잡기 통해 총체적 진실에 접근 필요"

조합원들은 앞으로 재난취재보도에 있어 총체적 진실에 접근하겠다는 자세로,

보도자료를 의심하며 팩트를 확인하되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시각에서 쓴 기사인 지 끝없이 반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조합원은 "총체적 진실에 접근하겠다는 자세로 취재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조합원은 "정부 보도자료에 한 번 더 의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현장 기자는 수없이 팩트를 확인하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쓴 기사인지 끝없이 반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 하나에 다양한 관점을 다루기는 쉽지 않은 만큼, 기사 안에 다른 입장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주석을 달아 총체적 진실을 알릴 수 있게끔 하는 기술적인 보완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 "주제별 통합적 접근 통한 방향성 제시"

앞으로 재난취재보도에 있어 부서 · 출입처별이 아닌 주제별 통합적 접근과 정보 제공을 넘어선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속보를 강요하는 관행을 없애고 현장 기자가 안정적으로 취재할 수 있도록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조합원은 "바이라인만 특별취재팀이 아니라 실제 태스크포스형 조직이 가동 돼야 영향력 있는 기사를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서·출입처별 기사가 아 닌 주제별 통합적 접근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정보제공은 많이 했지만,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사는 부족했다" 면서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취재 개선을 위해 회사의 변화와 현장에 있지 않은 동료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조합원은 "현장기자를 뒷받침하려면 회사도 기자에게 여유와 안정감을 줘야 한다"면서 "타성에 젖거나 선을 넘은 과도한 보도는 과로나 경쟁과열 때문에 나온 다"고 지적했다.

다른 조합원은 "속보를 강요하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정확성에 온 힘을 쏟으라는 지시를 내려놓고 정작 다음날 타사보도에 따라 질책을 하는 이중적 인 모습은 현장 기자들을 더 지치게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사만 현장기자에게 맡기고 책상에 앉아서 쓸 수 있는 기사는 현장에 없는 기자가 쓰면 좋을 듯하다"고 밝혔다.

◇ '맨땅에 혜딩' 은 이제 제발 그만

이미 연평도, 백령도, 캄보디아 등 대형 사건·사고 현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조합원들은 이제는 기자정신으로 '맨땅에 헤딩' 하기를 요구하기보다는 대형재난 재해 보도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 조합원은 "대형 사건·사고는 통신사에게 가장 기본적인 취재대상이고, 규모의 차이는 있더라도 반복돼왔는데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보다 이번에 갈 때 더많은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더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무했다

그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위해 배를 탔을 때 회사는 기자의 손에 구명조끼 하나 쥐여주지 않았다"면서 "파도가 워낙 거세 이러다 딱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형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는데도 매뉴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비난을 샀는데 우리도 언론사로서 수많은 현장경험을 그대로 흘려보냈던 것이닌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과도한 취재경쟁에 앞뒤 없이 뛰어들지 않도록 재난재해 보도윤리에 대한 회사차원의 기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 구성과 분배, 1인당 현장에 머무는 시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매뉴얼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 "비상상황에 현장으로 들고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방수방재 옷, 구명조끼 침낭 등을 담은 현장키트도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조합원은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이 없는 콘트롤타워의 애매한 태도"면서 "언제 교대를 한다고 말 을 해줘야 체력을 안배해가며 일할 텐데 그냥 되는대로 아파 쓰러지면 그때 바꾸 겠다는 식으로 운영하는 모습은 타사와 많이 비교가 됐다"고 말했다.

진도 실내체육관 취재기



최영수 전북취재본부

4월 16일 오전 여객선 침몰 소식 에 긴급 출장지시 를 받았다가 '학생 전원 구조'라는 보 도에 짐을 풀었다. 오보였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정정보도에 김동철 조합원과 전속력을 달려 오후 1시30분께 진도에 도착했다.

입사 후 최다 사상 · 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취재가 시작됐다.

진도 실내체육관 도착 전까지도 '설 마.잘 되겠지' 라는 기대가 컸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배에 수백명은 남아있다다. 사망자가 많다"는 생존자 증언은 충격이었다.

생존의 안도보다 "배에 아들 딸, 가족, 친구, 선생님이 있다. 살려달라"는 애타 는 목소리와 이어진 사망소식에 끝없는 흐느낌까지 더한 그 참담함이란.

원망, 분노, 애원, 기대, 안도가 섞인 곳에서 정신없이 취재하면서 최악의 상 황임을 알았다.

탐욕의 고리가 있었고, 안전장치와 제 도는 무용지물이었고, 초기 대응과 구조 는 부실했고, 선원들은 살기 급급해 승객 을 두고 먼저 도망쳤다는 것을 확인하면 서 눈물이 절로 나왔다.

'비극의 섬'에는 당일 광주본부원 6명에 전북 4명, 부산·경남 각 2명, 사진부 2명, 운전기사 4명 등 총 20명이 배치됐다. 이후 충원과 교체로 인력 변화가 있

었다. '카톡' 이 연락관 몫을 했다.

선임이라는 이유로 진도팀장을 맡아 인력 배치, 취재 지휘, 지시사항 전달, 각 종 보고, 취재 송고, 숙식 · 편의 제공, 배 차 등 많은 일을 해야했다.

가장 힘든 것은 언론에 대한 불신이었다. 생존자와 실종자 가족은 물론 당국자에게조차 외면을 받아 카메라는 물론 취재수첩과 노트북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실제 봉변 사례도 많았다.

팀원들은 그러나 비난, 욕설, 불만을 들으면서도 '팩트'를 찾고 '오보'를 막 고자 확인과정을 되풀이했다.

초대형 재난현장에서 강행군은 당연 했다. 휴식과 나태함은 상상 안됐고, 숙 식과 휴식은 물론 인력 교대는 언감생심 이었다. 녹초가 되어 갔다.

'제대로'보도하기 위해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못했다. 혐악하고 열악한 현장환경은 큰 스트레스였다.

강행군으로 심신이 지쳐가는 와중에 바람과는 달리 6일째 3명이 철수하면서 팀원들은 힘이 빠지고 동요했다.

'언제 교대되냐. 너무 힘들다"는 불평 이 나왔고, 타사의 교대·교체소식은 더 욱 맥을 풀리게 했다.

취재과정에서 재난 취재·보도에 관해 회사는 물론 기자협회, 사진·카메라기자협회 등의 차원에서 제대로 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대형사건 현장에 여러 부서원, 다양한 연차와경력의 취재진을 투입하고 회사 차원의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진도 팽목항 취재기



차근호 부산취재본부

'35번 시신, 여학생 추정, 160cm, 왼쪽 눈밑점, 나이 키운동화…' 신조자 가

는 밑점, 나이 니키운동화…' 했실종자 가 쯤 족이 몰려 있 라는 팽목항 가 이

족대책본부 게시판에 시신의 인상착의가 적혔다. 부스스한 머리에 슬리퍼를 신고 담요를 두른 한 어머니가인근천막에서 뛰어나오더니 게시판을 붙잡고 울음을 토해냈다. 그리고는 곧 허물어졌다.

2시간 뒤 팽목항 선착장에 45번째 시신이 흰 천에 덮인 채 들것에 실려 왔다. 딸의 얼굴을 확인한 어머니는 또 다시 허물어졌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은 '살아만 있으라'는 희망으로 사고해역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빨리 구조하라'는 항의가 빗발쳤고, 팽목항 한쪽에 설치된 TV에서는 정부와 해경의 소극적 구조를 질타 하는 보도로 떠들썩했다.

'150번 시신, 180cm 큰 키…'

어느덧 사망자 수와 실종자 수가 비슷해졌다.

'살아만 있으라' 던 실종자 가족의 바람은 '시신이라도 제발…' 로 바뀌 어 가고 있었다.

가족들은 (시신) '수색' 이라는 표 현을 받아들여 가고 있었고, 사회 안 전관리 시스템을 질타하던 TV는 누 군가 꺼버렸다.

"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가족도 나왔다. 국가가 믿음을 저버렸다고 했다. 160여 번째 시신이 확인될 때 쯤 나는 10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원 래 소속인 부산본부로, 일상으로 돌 아왔다. '실종자 29명'

사고발생 23일째다. 몸은 떠나왔 지만 선배, 동기들의 기사로 팽목항 의 상황을 접한다.

수습된 시신의 수가 확 늘어나면 서 이제는 남아있는 실종자 수로 수 색 진행상황이 전해졌다. 팽목항 실 종자 가족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남 지 않기를···' 바라고 있단다.

시신을 수습한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상황은 또 바뀔 것이다.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책임자는 대가를 치러야하고, 사회 안전시스템 곳곳에는 대수술이 집도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사고발생 첫날부 터 지금까지 지켜본 것처럼, 앞으로 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팽목항 실종자 가족을 위해서라 도. 실종자 가족의 눈물을 본 기자 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 았을까 생각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알권리와 상처받지 않을 권리... 그들에게 나는 기자였던가 아니면 '고통 제조기' 였던가…



이영주 경기취재본부

검정 뿔테안경을 쓰고 하얀 환자복을 입은 남학생은 고개를 떨군 채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 다. 따스한 햇볕이 저와 그 학생 을 비췄고, 바람은 살랑거리며 우리를 스쳤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봄날, 저는 그 학생 에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

은 기억을 되뇌게 하고 쓰라린 상처를 주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사흘째인 지난달 18일. 저는 고대안산병원에 '투입' 됐습니다. 과제는 구조돼 병원 에서 치료받는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만나 사고 당시 상황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기자야. 짜증 나. 왜 또 왔어"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학생들을 애써 외면한 채 저는 제 취재에 응해줄 '착한(?)' 학생을 찾 아다녔고, 마침내 병원 건물 뒤편 야외벤치에 앉아있 던 그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몇반 학생이에요?" "9반이요"

어떤 사정으로 구조된 것인지 궁금했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미 같은 질문을 수차례 받았다는 양 책을 읽듯 대답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의 소식을 묻자, 담 담한 척 표정 짓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곤 고 개를 숙인 채 "친구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저만 구조됐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을 고통스 러운 듯 내뱉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라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저는 '미안하다' 는 말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취재하는 며칠 동안 아이들은 병원에서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텔레비전을 보며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슬픔을 참지 못해 오열했고, 식사를 걸렀고,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열띤 취재열기에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 간 안산 현장에서 맞닥뜨린 이런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단원고에서, 쉴 틈 없이 운구 차가 나가는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들에게 무자비한 상처를 줬을지 모릅니다. 이후 경쟁적인 취재를 자제하자는 반성 어린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미 학생과 유족들은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뒤

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고민합니다. 알권리와 상처받지 않을 권리 사이에서 말입니다. 기자들이 소위 '사연 발굴' 하는 이유는 안타까운 죽음을 알려 사회에 경종을 울 리 고자입니다. 사고 순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했으 나 정작 자신은 구조되지 못한 고(故) 최덕하군, 세금 으로 치러지는 아들 장례에 값이 싼 용품만 골라 발인 을 마친 고(故) 정차웅군의 아버지. 이들의 사연은 허 술하기 그지없는 구조작업을 벌였던 해경에 쓴소리가 되었고, 국민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또 희생된 학생들이 찍은 동영상에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탈출하라'는 방송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탈출명령을 내렸다는 선 장의 거짓진술과 정반대의 '진실' 이었습니다. 모두 취 재로 밝혀진 산물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는 일이 개인의 상처를 담보로 해야 할 때 과연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펜을 놓는 순간까지 그 답을 찾아 헤맬 것 같습니다. 기자로서의 '사명감' 과 개인으로서의 '죄책 감' 사이에서 말입니다.

〈위원장, 현장을 가다〉 세월호 참사 특별취재팀 방문기

세월호 참사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근래에 없었던 대형참사라 현장에 차출된 조합원들이 꽤나 힘들텐데 뭐라도 사들고 내려가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더니 "정치인도 아니고 다들 정신없는 와중에 순시라도 하시려는 겁니까?"라는 대꾸가 돌아왔다. "고생하고 있을 조합원들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리 대답할 건 또 뭐야"라고 중얼거리며 속 좁은 마음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참사 5일째 되던 4월 21일 늦은 저녁 현장에 투입된 한 조합원의 전화를 받았다. "꼭 좀 내려와 보셔야합니다", 현장취재 근로조건을 직접 살펴 봐달라는 말에서 뭔지모를 절박함이 느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에 투입된 이들은 하루 평균 34명, 이중 조합원은 21명이었다.

22일 점심을 먹고 열차에 몸을 실은 지 4시간 10분 만에 목포에 도착했다. 최초 부상자 사망자들의 시신 이 집중적으로 들어 온 한국병원으로 향했다.

대전취재본부 양영석 조합원이 퀭한 얼굴로 병원로비 안내데스크에 마련된 기자석에서 일어났다. "사건첫 날에서 셋째 날까지 시신이 들어오고 해서 정신이 없었다"던 그는 입원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듣고 기사화하는 일을 맡은 지 6일째였다. 병원로비를 혼자 지키며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했다.

목포 현장의 조합원들과 간단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진도체육관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0시 10분께였다. 체육관을 둘러싼 중계차와 교통경찰, 자원봉사자 천막 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체육관 내부는 실종된 자 식이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부모들의 애끓는 마음과 현장 상황을 외부로 전달해야 하는 현장 취재진들의 고민으로 가득했다.

체육관 한 켠에 마련된 기자석에 울산취재본부 김 근주 조합원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선 바깥으로 나와 한참 있다가 다시 들어 가 인사를 나눴다. 짧은 대화를 마치고 자정을 넘겨 일 을 마무리한 조합원들과 한 자리에 앉았다.

조합원들은 "대형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력배치, 지원인력 구성, 현장 지원, 타 부서 기사 운용계획등을 유기적으로 만들고 보도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야간에 현장에서 철수해도 새벽시간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는지 체크는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1주일넘어가니 멍한 상태"라면서 의견을 내놨다.

다음날 아침 진도 팽목항으로 향했다. 포구까진 차 량통제로 5-10분 정도 걸어야 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밥차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유가족, 파견 공무원, 취재진들로 가득 찬 팽목항에 낮 익은 연합뉴스 밴 차량과 뉴스와이 보도 차량이 서 있었다.

수습기자 1명이 노트북도 펴질 못하고 스마트 폰으로 사고대책본부에서 발표하는 시신수습 발표를 분주하게 카카오톡 방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연번 141번, 키, 성별, 인상착의... 부두에 나온 유가족 몇 분이 오열하는 장면을 찍으려던 한 종편 카메라 기자는 "보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찍냐?"등 유가족 측의 격한 반응에 카메라를 빼는 상황도 벌어졌다.

밴에 쪼그리고 앉아 현장상황을 기사화하느라 여념이 없는 취재기자들과 짧은 담소를 나누기도 부담스러웠 다. 회사 차량 뒷 편 식당에서 작성한 현장 근로여건 관 런 보고서를 노조 사무국장에게 보내고 인력교체 문제 를 회사와 협의하라고 했다.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지방국의 1차 투입인원에 대한 인력교체 소식이 들렸다. 주말까지 축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다행이라는 생각보다 며칠 더자리를 지켜야 할 조합원들의 얼굴이 떠올라 발걸음이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에겐 힘들어도 잘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초췌한 얼굴과 부족한 잠에 찌든 눈매, 아직도 안 나간 기사가 있다며 새벽 1시 반에 노트북을 다시 펴는 막내 조합원의 모습이 못내 안쓰러웠다. 밴 차량에서라도 기사를 쓸 수 있어 다행이라는 후배들, "여긴 내 취재지역이니 끝까지 해야지"라고 바싹 타들어간 입술로 웃음을 잃지 않은 최고참 조합원의 얼굴이 서울행 KTX 차창에 어른 거렸다.

아와쿠라 요시카츠 교도통신 서울지국장 인터뷰

"'전원구조'는 살인오보...사장 교체도 마땅" "사고원인 보도가 중요하지만 유병언 뒤로 밀려" 지적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가 결정 적이었다. (재난 보도에서) 낙관적인 방향으로 한번 내면 정부의 긴장감에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살인 오보다."

일본 교도통신 서울지국장 아와쿠라 요시카츠(粟倉義勝)씨는 지난달 17일 연합뉴스 노동조합과 인터뷰에서 한국 언론이 세월호 참사 사건 초기에 보도 한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가 결 정적인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도통신에서도 1985년 JAL 기 추락사건이 났을 때 생존자가 4명이 었는데 8명으로 보내는 바람에 인사조치가 많았다"며 "세월호 오보는 편집국장, 사장 교체까지 갈 수 있는 오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어떻게 되어 왔냐는 것인데, 유병언 사건보다 후순위 로 밀렀다"며 한국 언론의 뉴스가치 판 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다음은 아와쿠라씨와의 일문일답 요지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한 국 언론이 여론의 거센 비난에 직면 해 있다.

▲이번 참사는 과실치사사건인데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가 결정적이었다. 왜 이런 엉터리 속보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 속보를 낸 보도기관들이 오보의 경위를 밝히고 제대로 설명하는기사나 방송을 내보내지 않으면 앞으로그런 매체(기사를) 교도는 더이상 받을수 없다. (재난 보도에서) 너무 낙관적인 방향에 있다 보면 쉽게 오보가 나올수 있다. 이것이 이번에는 최악의 형태로 나왔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한번 내면 거기서 긴장감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도를 낼 때 조심해야했다. 정부의 긴장감에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살인 오보다."

--일본 언론의 재난재해 보도는 어떠한가? 속보경쟁이 치열한가?

▲일본에서도 속보 경쟁이 있다. 사람의 생사가 걸려있는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한다. 교도통신도 옛날에 JAL기 추락사고 났던 1985년 당시, 실제 생존자는 4명이었는데 8명으로 보도해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 인사조치도많이 있었다. 2004년 이라크 배낭여행 갔던 20대 젊은이가 살해 당했다. 목 없는 시체가 발견되어 그 사체가 그 친구

맞다는 정치인 말만 믿고 내 보냈다가 편집국장의 목이 달아났다. 그 여행객이 죽은 건 확실한데 사체는 그 사람 것이 아니었다. 세월호 오보도 편집국장·사 장 교체가 마땅한 오보들이었다.

--한국 언론의 세월호 보도 전반 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고 원인의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어떻게 되어왔냐 는 것인데 유병언 사건보다 후 순위로 밀려나 버렸다. 예를 들어 선박은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항만 운항관리실 에 제출한다. 그걸 (세월호 포함) 거의 모든 배가 출항 후 전화로 해왔다고 한 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운항 관리실 직원 2명이 체포됐다는 기사가 있었다. 아마도 전국 항만에서 운항관 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톱 뉴스라고 본다. 그 날도 유병언 기사 가 주요 기사로 나왔다. 독자 입장에선 이걸 가장 관심있게 볼 기사라 좀 길게 써줘야 했다. 제가 데스크라면 그 기사 쓴 기자 용서 안 했을 것이다.

--연합뉴스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연합의 세월호 보도는 어떻 게 평가하는가?

▲ '사상 최대규모 수색' 이라고 했는데, 첫 단계에서 사실 해경·해수부가 그

런 발표를 한 바 있다. 최소한 그렇게 느 낄만한 발표를 했다. 당연히 (수색작업을) 할거라고 믿었을 거다. 그런 기사가나오는 것도 가능한 일이긴 하다. 이런 큰 사건 때 속보는 통신사 기자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그 어떤 경우에도 근거를 붙여서 보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해경 누구누구 과장이 상황이라고 했다라고 써야한다. 다만 이런 큰 사건일 수록 그런 원칙이 안지켜지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 걸로 밥 먹는 직업인이라 그걸로는 변명이 안된다고 본다.

— 교도도 정부 발표를 받아쓰는가?

▲우리 가맹사들이 대부분 리버럴한 지방신문이다.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다. 다만 정부 발표는 당연히 보내고 이런 발표가 있다고 보도하지만 의견을 붙여서 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노심 용융(melt down)이이뤄진 상황을 미리 알고 처음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냈다. 그런데 당국자들은 이거 아니다 노심이녹은 상황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 말이 당국자 입에서 나오자 노심 용융이란 말이 사라졌다. 그 후 아사이, 마이니치 신문 등에서 (당국자 발표 따라가기)보도 행태에 대한 사내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연합노보 06

노조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전열 재정비'

노동조합 제26대 정기대의원대회가 지난달 16일 오후 4시 본사 12층 대회 의실에서 열렸다.

신임 대의원 14명을 포함해 재적 대의원 43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는 한 해 예산안 및사업계획 인준 외에 현안토론을 통해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드러난 사측의 무원칙한 인사를 강력 성토했다.

특히 공정보도 정신을 훼손한 인사와 성희롱 징계자 등에 대한 인사문제를 놓고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대의원 목소리는 대회 사흘 뒤

"송사장은 '연합호' 를 어디로 몰고 가려하는가"라는 제목의 집행부 · 대의원 결의문에 고스란히 담겨 발표됐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세월호 보도 문제 점과 보도관행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도 진행돼 편집국 내 콘트롤 타워 기능과 속보 관행 개선, 정부 보도자료 처리 개 선 문제, 취재기자 심리 트라우마 치료 등이 논의됐다.

현안 및 경과 보고시간에는 故 배정 현기자 산업재해신청을 위한 노무사 선 정 및 관련 절차진행 상황을 비롯, 올 하반기에 예정된 경영진 평가, 뉴스통 신진흥회 이사진 교체 등의 일정을 공 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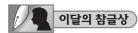
사전 조사 형태로 제출된 부서별 현안 사항으로는 지역 취재본부의 '기획위원' 인사, 지역본부장 데스크 권한 본사 일부 이양, 초과근무수당(O/T) 회수건, 연봉 사원 승진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노동조합은 제26대 집행부 중점과제로 공감을 위한 소통확대, 공정보도 감시 활동 강화, 현장근로여건 개선, 부서간 조합원간 차별 철폐를 제시했다. 현장 소통을 강화해 조합원과 언제나 함께 하며 싸우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오정훈 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마치며 "앞으로 헤쳐나갈 현안들이 많다. 대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도부를 믿고조합원들과 함께 맞서 나가자"고 강조했다.

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수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40명이었으나 이번 대의원대회부터 43명으로 늘어났다.

34명의 조합원이 근무하는 마케팅부의 대의원수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경기본부와 경기북부본부는 겸임대의원 체제에서 단독 대의원체제로 변환했다.



참글상 우수상에 김선호 조합원의 '형제복지원 사망자 38명 추가 확인' 배영경. 임미나, 김연숙 조합원은 3·4월 장려상 받아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연합뉴스 지회는 지난달 27일 월례 정기회의를 열어 배영경(증권부)조합원의 〈여객선침몰〉청해진해운, 노후선박 세월호 수명 7년 연장'기사를 제209회 이달(2014년 4월)의 참글상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사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감사보고서를 처음으로 분석한 기사로 후속 기사의 지표가 됐으며, 참사 의 원인으로 지목된 구조변경 과정에서의 장부가치 상승, 이에 연계된 산업은행의 대출과정까지 파헤쳐 선사의 책 임을 부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앞서 공보위와 기협지회는 지난 4월 22일 월례 정기회의를 열어 김선호(부산취재본부) 조합원의 '인권유린'형제복지원 사망자 38명 추가 확인'기사를 제208회 이달의 참글상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사는 국내 최대의 인권유린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27년만에 처음으로 추가 사망자가 있다는 사실과 사망자 유골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굴해 사건 재조명과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법안이 발 의된 가운데, '부산시, 형제복지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착수' 와 '〈허가취소 검토' 부산 형제복지원 재산 규 모는〉' 등 끈질긴 추적보도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 는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와 지회는 또 임미나(다문화부) 조합원의 '농업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을' 시리즈와 김연숙(사회부) 조합 원의 '여대생 체코서 사고로 의식불명…비용탓 귀국도 못 해'기사를 각각 이달의 참글상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상패와 상금 50만원이, 장려상에는 상패와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5월 송고분에 대한 이달의 참글상 신청은 6월 10일까지 각 공보위원이나 노조(nojo@yna.co.kr)에 하면 된다.

이달의 참글상은 권력과 자본에 대한 견제, 소외계층 보호, 사회갈등 해소 등의 내용을 담아 정의롭고 올바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기사 등에 수여한다. ■



김선호 부산취재본부

부끄럽지만 취재 전까지 형제 복지원이 뭔지 몰랐다.

군사정권 시절 부랑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민을 붙잡고 각종 인 권유린 행위가 벌어진 형제복지

원이 소위 내 '나와바리' 에 속했지만 몰랐다. 형제본지원이 있던 장소는 혀재 아파트 대

형제복지원이 있던 장소는 현재 아파트 대 단지가 들어섰다.

2012년 형제복지원의 한 피해자가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면서 27년만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지역에서는 오히려 조용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를 수소문해 진상 규명 입법운동을 펼친 시민단체도 서울에 있 어 관심이 덜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늦 었지만 형제복지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를 접촉하고 알음알음 알게된 피해 자를 만나면서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속 또 하나의 전제 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을 무법천지, 생지옥 이라고 표현했다.

불법 감금, 강제노역, 구타, 학대, 암매장, 성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됐지만 1987 년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간 형제복지 원 수감 중 사망자만 513명이었다. 그중 명단이라도 있는 사람은 100여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누가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망자 시신을 수소문하던 중 피해자와 시 민단체가 언급한 무연고시신 처리 가능성에 주목하고 당시 부산의 시립공원묘지였던 영락 공원을 찾게 됐다.

어렵사리 허락을 받아 직원과 함께 먼지가 쌓인 매장처리부를 뒤진 결과 1986년 23명, 1987년과 1988년에 각각 32명, 6명의 무연고 시신이 매장된 사실을 발견했다.

기존 사망지수는 1986년까지 513명이었지 만 이후 2년간 38명의 무연고시신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일부 가족에 인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신 매장사실이 확인된 것도 처음이었다.

1987년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행위가 폭로돼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가혹행위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다는 점도 충격이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수천명에 이르는 피해자 대부분은 형제복지 원의 악몽같은 고통 속에 27년이 지난 지금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반면 형제복지원 재단 이사장 등 일가족은 복지재벌로 큰 소리치며 살고 있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의 비호 아래 수십년 간 각종 재정지원을 받았고 형식적 복지사업 을 빌미로 부를 쌓았다.

지난 3월 발의된 진상규명 특별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이제라도 형제복지원 사건이 명 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